(알람 소리)

오랜만에 느끼는 이 개운함!

(브금 꺼짐)이 불안한 느낌은...

(화면 흔들림)지각이다!!!

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학교로 향했다.

(페이드 아웃)

(페이드 인 : 강의실)

하하...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다! 자, 그럼 이제 꿈나라로 가볼까?

엎드려 자려던 나는 옆 자리에서 달달한 체리 향이 코를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

저번에 알바할 때 맡았던 향이 나는 것 같기도… 누구지? 살짝 얼굴만 볼까?

..!(화들짝)

고개를 들어 본 곳에는 유가현이 떡 하니 앉아있었다. 이미 꿈 속인 건가.

너가 왜 여기서 나와…?

그…그러 게에-요? (당황하는 표정)

(페이드 아웃)

(페이드 인 : 강의실 복도)

저기! 잠깐만!!

휴우.. 안녕..해요?

이게 대체 무슨 반존대지?

같은 학번아니에요..? 그냥 말 편하게 해도 되는데…

아..! 그럴까?

…

저번에는 미안 했어!!!

우물쭈물하던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부끄러운 듯 얘기했다.

**1. 뭐 이미 지난 일인데… 괜찮아!**

**2. 아냐, 술 취하면 옆 사람 번호도 따고 그러는 거지!**

**1. 뭐 이미 지난 일인데… 괜찮아!**

술 취해서 한 짓이 뭐가 그리 미안한 지 그녀는 여러 번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표했다.

**2. 아냐, 술 취하면 옆 사람 번호도 따고 그러는 거지!**

나도 술 취하면 그러는데 뭐, 이게 대학생이지! 하하…

….

이 정적 뭐야. 뭔데?

아…아..!!!

아 그때처럼 당황스러운 표정이다.

미…미미미미안해 장난이였어 장난!!!

그…그때부터 계속 생각해봤는데…!!

3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..? 별로 신경은 안 쓰였지만.

아무리 내가 좋다 해도 그렇게 마, 맘대로 그러면 안되는 거였어.

000 너 입장 생각도 못하구우…(울먹울먹 표정)

정말 미안해! 그리고... 나였으면 정신병자…? 같은 사람처럼 생각했을 것 같은데..ㅜㅜ 거절 안 하고 친구라도 해줘서 고마워!! (울먹울먹 표정 / 웃는 표정)

…먀?

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? 진짜 보기와 다르게 할 말은 다 하네..

이 얘긴 이제 끝! 너무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... 그건 그렇고 너 학과가…

응! 나 게임 학과야! 헤헤.. 2년동안 한 번은 볼 듯한데.

아마 내가 동기들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…

나 000, 나이 21세 친구 총 2명! 이 시대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‘**공대 너 - 드남**’이랄까..?

야 니 남친이다 ㅋㅋㅋ

아~ 완전 옹이 눈에 못생겼잖아, 뒤질래?

……

…... (둘다 정적) (땀뻘뻘)

…가현아 뭐라고?

아...! 그… 옹이 눈(??? 언제?)이라 했던 것도 미안 하하.…(땀뻘뻘)

괜찮아...!

000 너 울어...? 어, 아아…! 진짜 미안해!!!!! (당황)

(페이드 아웃)

(페이드 인 : 카페)

아, 맞다! 000. 방금 들었던 수업 여기에 글 올라온 거 봤어?

어...올타임이네?  
[올타임이란? 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앱이다.]

맞아! 이 수업 교수님 점수 완전 짜게 준대.

얘 안면 트면 말이 많아지는 타입인가? 뭔가…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네. 귀엽다.

?

엠티도 간다고 하던데!   
…올 타임 되게 자주 보나 보네. 보통은 행사는 단톡에서 공지로 알게 되지 않나...?

너 올타임 자주 봐?

응, 대학교 입학하고나서 학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에 정보도 많고…

여기서 알게 된 사람이 내 고민 같은 것도 엄청 잘 들어주고 해결해줬거든!

고마운 사람이지? 그래서 그때부터 자주 보게 되네-.

(페이드 아웃) 주인공 새내기 시절

와… SNS에서만 보던 올타임을 내가 하는 나이가 오네...

앱을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글을 보게 됐다.

“제목: 미연시 게임 만들까 싶은데…. 나 모쏠이거든… 어쩌면 좋을까? 아 몰론 지금 바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 친구도 좀 사귀고 공부도 하고!”

오~ 게임? 나랑 같은 학과인가? 쪽지보내봐야지 ㅋㅋ.

“그거 그냥 아무 사람 붙잡고 사귀자하면 되는 거 아님?ㅋㅋ”

(문자음)“좀 막무가내아냐..?”

“알빠노”

(문자음)“ㅋㅋㅋㅋㅋㅋㅋ그게 뭐야”

이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매일 쪽지를 하다 개강 전날 꼭 봤음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잠들었다.

흠흠. 아무튼! 너 엠티 갈거지?

…

000?

(페이드 인)

어? 아, 응. 미안!

갑자기 이게 왜 기억나는 거지?

그때 내가 빨리 남자친구 사귀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해?

기억하지?

그게…사실…

미연시 게임 만들고 싶은데 연애 경험이 없어서- 아, 그러니까 그게!!!! 내, 내가 모태솔로라아-!!!!!!

난 한순간 주변 시선이 유가현에게로 쏠리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.

그리고 뭔가 방금 엄청난 말을 들은 것 같은데.

그…일단 진정하고, 이거 너지?

난 재빠르게 폰을 켜서 올타임 쪽지 내역을 유가현에게 보여줬다.

어,

어?

어?!!!!!!!!!!??!??(화면 흔들림)

와 얼굴 곧 터지겠는데?

풉!! 너도 진짜 대단하다. 장난으로 시작한 말 이였는데 그걸 고~대로 하네

아, 아 그만 놀려!!!!!!(뺴액)

.

.